

지방선거 후유증-멍드는 지역사회

1 극심한 평가리기

‘사생결단’ 선거전... ‘검은 공생’ 악순환

- 2 뒤집히는 정책들
- 3 인사는 복미전
- 4 판결에 떠는 단체장

5·31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4개월이 채 못됐지만 선거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가 빛은 고질병인 지지세력간 평가리기와 줄서기로 지역사회는 황폐화되고 있다. 지지단체장이 바뀐 시·군·구는 전임 단체장 사람 자르기와 제식구 심기가 극성이다. 신안군수는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당선 무효됐고, 화순군수는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돼 군수직을 사퇴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한달 후인 오는 10월 25일 신안군수와 화순군수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지방선거 후유증에 신음하는 지지세력의 실상을 짚어본다.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진 곳은 예외없이 주민들 사이에 편이 갈린다. 지지 후보가 달랐던 공무원들끼리는 말도 하지 않을 정도다. 선거 때 극심했던 비방전의 앙금으로 인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평가리기는 지역 상권의 양분화를 불러온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은 음식점.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가 워바뀐 화순지역의 음식점은 철저하게 편이 갈라져 있다. 낙선한 이영남 전 군수 지지자들은 화순읍내 N식당에서 자주 모이고 있다. 당선 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 도중 사퇴한 전형준 전 군수를 돕는 사람들은 S식당을 잘 찾는다.

선거때 비방전 앙금 고소·고발로 이어져

이처럼 지역의 기본상권을 형성하는 식당들은 현직 단체장과 반대파에 의해 철저하게 양분된다. 현직 단체장이 자주 찾는 곳은 ‘유명세’라는 텃밭을 얻어 영업에서 유리한 것이 당연지사다.

이 달 초 영광에서는 현 군수가 선거운동 때 자신을 돕지 않았으며 한 식당 주인에게 폭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이 한 때 술렁거렸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 군수와 식당주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지만 식당 주인이 지난 선거 당시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을 두고 군수가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 군수 측은 “서로 앙금을 털어내고 잘 해보자는 취지의 대화 오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선거 뒤 곧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보성에서는 하승완 전 군수 측이 정중해 군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진위를 가리고 있다. 박병중 고흥 군수도 상대 후보 측에 의해 비방 혐의로 고발당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선거 후 정승이 벌어지는 동안 후보별 지지자들 사이에는 두터운 ‘마음의 장벽’이 세워져 등을 돌리게 된다. 지역 토목·건축업자들은 지지 후보의 당락에 따라 아예 생사가 갈린다. 어느 지역이랄 것 없이 관련업체들은 시장·군수와 같은 편이나 아니냐에 따라 공사수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흥망이 판가름난다.

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단체장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게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공사를 따 내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업체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이유다. 평가리기의 더욱 심각한 폐해는 단체장과 업체들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검은 고리까지 형성한다는 데 있다. 단체장이 공사를 맡겨주면 업체들은 공사비의 10~20%를 리베이트로 제 공하는 게 업계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단체장은 일거리를 주고 대신 업체로부터 사채를 받아 ‘정치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 이처럼 선거를 통한 평가리기는 지역 양분을 넘어 범죄로까지 연결된다. 주민자치를 위해 도입된 지방선거가 시간이 흐를수록 역기능이 두드러져 되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호순=조성수기자 css@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부산 최고 민속주 나주 친환경쌀 선택 1社1村 결연-계약 재배

나주 친환경쌀이 부산의 주류업체 (주)천년약속에 납품돼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 천년약속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공식 간배주인 상황버섯 발효주를 만들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무농약 친환경쌀 재배단지인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이암마을(대표 이원태)과 부산의 (주)천년약속은 25일 이암마을을 회관에서 ‘1사 1촌 자매결연식’을 갖는다. 자매결연식은 전남도 관계자와 나주시장, 마을주민, (주)천년약속 임직원 등 200명이 참석한다. 이암마을은 전남도 생명농업과대학의 기술지원을 받아 친환경 벼를 생산하고 있는 ‘남녘들 영농조합법인’에 10여 농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배농가들은 지난 5월 (주)천년약속과 무농약 친환경 쌀 10ha를 계약재배로 했으며 올해 38t을 생산, 이중 30t(20kg 1천500포대)을 (주)천년약속에 납품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연간 100t 이상 무농약 일반쌀도 이 회사에 납품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납품가격은 8~10월 중 3개월간 서울도매시장 평균 가격에 35%를 가산(20kg 1포대당 7만 5천원)해 납품토록 돼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는 남녘들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는 친환경 쌀을 고품질 쌀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자문자정조사 시설비 3억원을 지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

日 아베정권 내일 출범

정부, ‘한일관계 정상화’ 축하메시지 전달키로

정부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6일 취임한 직후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메시지 전달 직후 양국 고위급 인사의 접촉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아베 정권 출범후 총리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양국의 공동노력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후 양국 고위 인사의 방일 또는 방한을 통해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정내에서 아베 총리 취임후 한일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

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양국 고위인사간 협의 등을 거친 후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문화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오는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APEC)에 앞서 서울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가능한 지를 이 모임의 일본측 회장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에게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지가(日經)신문이 전했다. 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한차례의 한일 정상회담보다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정립이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가 24일 오후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장을 가득 메운 2천여 관객들은 풍부한 감성과 기교로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을 선보인 조씨의 공연에 열광했다. > 관련기사 8면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4대 보험’ 2009년부터 통합징수

<건강·연금·고용·산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2009년 1월 1일부터 일원화해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제성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하고, 연내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 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 빠르게 25일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확정된 방안 따르면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연내에 입법된다. 특히 국제성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치, 2009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일원화해 전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제 51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9월 1일~30일, 광주 지하철 금강로5가역
광주미술관 > 문의처: (062)226-0541

후원학원 장학금 6.68천 원 지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70-4114 > 7.062)670-5000-9

대한민국 국가정보
대한민국 국가정보
대한민국 국가정보

중 우다웨이 28일 방한 ‘6자회담 재개’ 논의

정부는 현재 미국 뉴욕에서 진행중인 미국과의 이른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협의를 토대로 오는 29일 서울에서 한중간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 관계자가 24일 말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오는 28일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도 24일 “중국하고 원론적 차원에서 합의된 것이 있다.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 한중간 서울에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국 130개 도시 400여개 매장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는 기쁨, 주는 즐거움-금강제화 상품권
금강, 랜드로바, 금강핸드백, 의류까지 다양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금강제화의 정성적 제품(아담 혹은 뽀빠족 사원)를 통해서 > 금강제화 100% 정품 보증 > 400여개 매장 어디서나 편리하게 > 24시간 고객센터 > 1588-8877
받는 기쁨, 주는 즐거움-금강제화 상품권
상품권의 베스트셀러
금강제화 상품권
상품권 구입문의: 전국 어디서나 1588-8877
www.kumgangmail.co.kr